

직조 행위로서 직조된 얼굴

심소미

그리스 신화에서 베 짜는 기술을 뽐내다 신과 기술을 겨룬 죄로 거미가 되어버린 아라크네라는 여인이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금기를 베 짜는 행위를 통해 뛰어넘으려 했으나, 욕망에 대한 대가로 평생 실을 짜게 된 운명에 처한다. 거미가 되어 '직조' 그 이상은 어떤 것도 욕망하지 못하게 된 아라크네의 저주처럼 이후로도 베 짜기, 바느질, 재봉질 등 직조 행위는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국한되며 장식과 실용적 목적 정도로 도구화되어 왔다. 윤지선의 재봉 작업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미 한계 지어진 '직조'를 다시금 고찰하게끔 한다.

2007년부터 본격화됐던 작가의 재봉질 작업은 자신의 얼굴 사진에 천을 덧대고 그 위에 재봉질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얼굴을 수 십 여개의 다른 얼굴들로 변형시켜 왔다. 재봉질을 통해 직조된 얼굴은 표면 아래 감춰진 이면의 모습이거나, 가면이나 장식을 통해 가장된 모습 등 얼굴 이미지에 부여된 여러 속성을 복합적으로 내포한다. 이러한 얼굴들은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질서정연하게 조직된 재봉 방식에서 비껴나간 것으로, 작가가 사진 이미지를 바늘로 파괴하면서, 실을 새 살 마냥 입혀나가는 재봉 방식을 통해 쉽게 가로지르거나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Saw me>와 <What am I to you>가 고정되고 형식화된 사회적 관념들을 얼굴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변화시켰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근작 <Rags face>는 표명될 수 없이 내면에 억압된 원초적이고도 무의식적 심상을 과감히 드러내 보인다. '누더기 얼굴'이라 붙여진 작품제목이 암시하듯이, 근작은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겹겹이 상흔과 고통들을 새기어나가며 닳아져간 얼굴들을 직조해낸다.

'누더기 얼굴'에서 작가는 전작보다도 자유롭게 직조하는 '행위'로부터 재봉 작업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국한되었던 직조의 수행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근작은 직조 행위 그 자체를 도발적이고 거침없이 구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근작의 직조 행위는 사진 이미지의 사용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된다. 전작과 같이 자화상 이미지를 사용한 작품의 경우, 표정, 시선, 머리카락 등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세부 요소들에 변화를 주어 얼굴을 극적으로 연출해

낸다. 이러한 변화는 얼굴을 위장 혹은 가장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욕망을 표출하던 전통 가면극이나 주술적 역할을 소원하던 아프리카 가면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작가는 얼굴 위로 재봉질을 과도하게 흘러넘치게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에게 잠재된 보이지 않는 힘을 폭로하듯 원초적 생명력에 접근해 보인다. 본 작업의 경우, 작가는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도 과잉된 직조 행위를 통해 대계를 훼손시켜 나가며 스스로의 이미지를 배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은 이후에 사진 이미지 없이 직물로만 구성되는 직조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지가 아닌 직조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작가의 근작에서는 ‘과잉’되었던 재봉 방식과 상대적인 ‘결여’된 직조물 또한 시도된다. ‘누더기 얼굴’의 최근작인 본 작업에서 작가는 사진 이미지 대신 한지를 대어 엮음과 짜임이 노출되도록 헐겁게 재봉질 한 다음, 한지를 다시 물에 녹여내어, 실과 실 사이로 드러난 우연적인 구멍들을 자연스럽게 직물의 일부분으로 수용해 보인다. 작품의 사이사이에 생겨난 구멍들은 직물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흐리며 외부의 풍경까지도 직물의 한 부분으로 투영해낸다. 이로써 ‘누더기 얼굴’은 완결된 이미지가 부재하는 결핍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공간의 도처에 있는 이미지들을 시선에 따라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진다. 윤지선의 재봉 작업을 접근하며 처음에 언급했던 아라크네의 일화는 ‘베 짜는’, ‘직조하는’ 행위, 다시 말해 낱실과 씨실을 한 올씩 직조해나가는 행위가 욕망하며 넘어서고자 하는 경계에 대한 신의 경고였다. 직조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어 그람마타(grammata)는 ‘엮어 넣는다’, ‘쓰다’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어원이 의미하듯이, 직조하는 행위는 억압되고 가려진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엮어서 다시 쓰는 힘을 가진다. 그러한 가운데, 윤지선이 직조하여 엮어내는 얼굴에는 구멍과 틈새와 같이 결핍되고 소외된 영역 또한 경계 없이 수용되는 모습이다. 이리하여 직조된 얼굴에는 감춰진 상흔과 폐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침묵의 상태까지도 함께 엮이어 쓰여가는 중이다.